

## 363명의 신임 사무관, 정책 현장으로!

– 제62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·사무관시보

임명장 수여식 개최 –

1.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63명이 18주 동안의 신임관리자과정(임용 전 교육)을 마치고, 신임 사무관으로 임용돼 정책 현장에 나간다.
  
2. 인사혁신처(처장 김판석)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원장 오동호)은 지난 9월 8일 국가인재원 진천 캠퍼스(본원)에서 제62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 및 사무관 시보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.
  - 이번 수료 행사는 ‘가슴이 뻐다, 파란을 일으키자!’라는 주제로,
  - 수료식 전날, 교육생이 참여하는 교육생 문화제\*와 국가인재원장과의 ‘다 같이 좋다!’\*\* 토크 콘서트가 열렸으며,
    - \* 추억사진전, 공직가치 영화제, 3력(실력·담력·매력) 발산 문화제
    - \*\* 다 같이 ‘좋다!’ : ‘좋은 인재개발, 따뜻한 인재원’을 의미
  - 8일 본 행사에서는 교육과정 회고, 수료증과 임명장 수여, 공무원 선서 등에 이어, 공직자로서의 새 출발과 도전을 다짐하는 공직다짐 퍼포먼스와 타임캡슐 봉인식이 진행되었다.
  - 특히, 타임캡슐 봉인식은 김판석 처장과 오동호 원장의 격려서한, 교육생의 자작편지, 분임별 추억물품 등이 담겨, 10년 후 같은 자리에서 개봉될 예정이다.
  
2. 올해 신임관리자과정은 ‘올바른 공직자세와 미래에 대비한 정책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’을 목표로 실전형으로 진행됐다.
  - 공직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입교 직후 합숙교육(3주)을 실시하고, 선배 공무원 20명이 합숙을 같이 하며 멘토로서 교육생들을 잘 지도했다.

- 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제 해결 중심의 정책기획 실습, 미래정책 아젠다 연구, 역량개발 훈련 등 참여형 학습으로 직무와 리더십 역량을 쌓았으며,
-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(KDIS), 국립외교원과의 합동교육으로 글로벌 대응역량도 쌓았다는 평가다.
- 교육생 스스로 학습목표와 방식 등을 사전에 계획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평가받는 자기개발 학습체계도 도입, 운영했다.
- 이번 교육과정은 행정직(286명)은 국가인재원 진천 캠퍼스에서 2개 분반으로, 기술직(77명)은 과천 캠퍼스에서 각각 직무분야별 맞춤형으로 진행돼 교육의 효과성도 높였다.

3. 이날 수료증과 사무관 시보 임명장을 받은 363명의 신입 사무관들은 6개월(~ '18.2.28)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실무수습 근무를 하며, 내년 3월 각 부처에 배치될 예정이다.

4. 김판석 처장은 “앞으로 각 부처에서 일을 할 때, 본인의 직급과 직접적인 업무 중요도에 관계없이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조직,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.”라고 당부하였다.

5. 오동호 원장은 “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감사하다”라며, “오늘 공무원 선서를 통해 국가와 국민께 약속한 공직 다짐을 공직생활 내내 잘 실천하고, 국민을 위한 명품 정책을 만드는 정책가로 성장하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